[장학회 2편] 깜깜이 수익금

장학회의 주 재원인 KBS노조의 수익사업

4년 동안 수입 지출 한 번도 검증 안해

장학회의 재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재원은 KBS노동조합이 사내 수익사업에서 번 수익금이다. 즉 주차장, 웨딩홀 운영, 그리고 자판기 수익금은 전액 장학회의 수입이 된다. 두 번째는 회원들이 내는 회비이다. 현재 3천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나이에 따라 매월 20대 5천원, 30대는 1만원, 40대 4만원, 50대 이상은 7만원의 회비를 내고 있다.

그런데 회비는 퇴직시 회원들에게 모두 원금을 돌려주게 돼 있어 사실상 '부채'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장학회의 핵심 재원은 KBS노동조합이 내는 주차장, 웨딩홀, 자판기 수익금이라 할 수 있다.

<그림1>2013년 KBS노동조합과 사측의 합의문

새로운 장학금 제도에 관한 합의서

② KBS노동조합은 2014년부터 수익사업(주차장, 웨딩, 자판기에 한한다)에서 발생하는 분기별 순이익(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세금문제는 다음연도에 정산한다) 전액을 장학금 재원으로 출연한다.

③ KBS공제회는 2014년 수익구조 개선조치 이후에 발생하는 순이익의 80%(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세금문제는 다음연도에 정산한다)를 매년 장학금 재원으로 출연한다.

2013. 12. 31.

사측대표		노측대표	
한국방송공사		KBS노동조합	
부사장	전 홍 구 (인)	부위원장	이 현 진 (인)
시청자본부장	문 창 석 (인)	사무처장	김 종 우 (인)
총무국장	김 용 주 (인)	복지국장	화 기 영 (인)
예산주간	김 윤 로 (인)	총무국장	손 병 희 (인)
후생안전부장	류 진 희 (인)	특임국장	이 승 재 (인)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을 환원해야했고 동시에 회사가 시행하던 장학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2014년부터 KBS노동조합의 수익사업 중 주차장, 웨딩, 자판기 수익금을 전액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새로운 장학금제도를 만든 것이다. 운영은 그대로 KBS노동조합이 하되 수익금은 장학회의 재원이 된 것이다.

따라서 장학회의 주 재원인 KBS노동조합의 수익사업은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 또 장학회에 가입한 모든 회원, 더 나아가 모든 사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다면 장학회는 그동안 이 수익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왔을까? 매년 회계 결산 감사는 제대로 해 왔을까?

놀랍게도 장학회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치 KBS노동조합의 수익사업 수익금에 대해 단 한 번도 회계 검증을 하지 않았다. 매출은 얼마였는지,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이 얼마였는지, 비용은 적절했고 증빙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통장 잔고는 잘 관리되고 있는지 등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회계 검증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KBS노동조합과 사측 위원들로 구성된 장학회의 최고 집행 의결기구인 장학회운영위원회는 KBS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수익금을 그대로 인정해왔다.

<그림2>장학회 예산안

3. 연도별 자금현황 및 잔고현황

구 분	수 입		지 출		잔액 누계
2014년	계 34억 9,715만원		계 28억 2,691만원		6억 7,024만원
	회비원금	34억 8,683만원	회비원금(131명)	1억 4,410만원	
	이자수입 외	1,032만원	장학금(148명)	26억 8,207만원	노조부담(28명) 5억 600만원 별도
			법인세 등	74만원	
2015년	계 23억 7,694만원		계 27억 8,194만원		2억 6,524만원
	회비원금	19억 9,047만원	회비원금(179명)	3억 771만원	
	이자수입 외	1,234만원	장학금(135명)	24억 7,308만원	노조부담(26명) 4억 9,400만원 별도
	복지카드(14년분)	3억 3,413만원	법인세 등	115만원	
	14년사업수익 (푸드코트)	4,000만원			
2016년	계 21억 4,738만원		계 3억 1,414만원		20억 9,848만원
	회비원금	19억 6,792만원	회비원금(36명)	7,364만원	
	이자수입 외	565만원	장학금(17명)	2억 3,974만원	
	복지카드(15년분)	1억 2,381만원	법인세 등	76만원	
	통근버스(15년분)	5,000만원			
2017년	계 26억 4,744만원		계 3억 5,878만원		43억 8,714만원
	회비원금	20억 1,282만원	회비원금(27명)	6,845만원	
	이자수입 외	4,525만원	장학금(18명)	2억 7,187만원	
	복지카드(16년분)	5억 4,049만원	법인세 등	1,846만원	
	통근버스(16년분)	4,888만원			

2014년과 2015년엔 KBS노동조합에서 수익금이 5억 원이라고 통보하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이후도 같은 방식으로 일방적인 수익금의 통보만 있었다. 사실상 수익금의 주인이 장학회인데, 장학회는 자기 수익금에 대해 믿기지 않을 만큼 관심이 없었다.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주인은 매니저에게 매출과 비용을 따질 것이다. 특히 재료비나 인건비, 관리비, 세금과 같은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고, 비용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공공의 자산을 운용하는 장학회는 왜 단 한번도 KBS노동조합의 수익금에 대해 총 매출과 비용에 대한 검증과 결산을 하지 않았을까. 이는 장학회운영위원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그림3>KBS노동조합 2018년 대의원대회 자료

제 86차 대의원회

회/의/자/료

KBS노동조합

별첨 #3.

2017년 노동조합 기금 수지 및 잔액 현황

[기간 17.1.1~12.31]

(단위:원)

	계	271,449,151	계	180,287,109	91,162,042	
수익사업 (학자금)	*주차사업 수익					
	ㅇ전기이월금	479,458,519	ㅇ주차장 운영위탁 수수료	278,217,400		16년 12월~17년 12월
	ㅇ주차사업 수익	1,164,638,868	ㅇ수익에 대한 임대료	30,618,743		16년 12월~17년 11월
	ㅇ이자수입	529,236	ㅇ부가가치세납부	83,826,444		16년4분기,17년1분기~3분기 해당분
			ㅇ법인세/지방소득세	59,159,990		15년도분, 16년도분
			ㅇ법인 결산 조정수수료	3,300,000		16년도분
			ㅇ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주민세	3,073,250		
			ㅇRF카드/정기권,주차권구입	14,102,000		
			ㅇ주차시설관련 보수,유지비	4,474,000		
			ㅇ주차사업 운영경비	6,344,880		
			ㅇ주차사업 비용구입	28,202,030		PC,오니더,카드결제 단말기 등
			ㅇ세무사 자문료	3,960,000		
			ㅇ통신비	1,394,300		주차장 휴대용 무선단말기 통신료, 인터넷사용료,오영사용료
					①	
	계	1,644,626,623		516,673,037	1,127,953,586	
	*예식사업 및 자판기 사업 수익					
	ㅇ전기이월금	314,714,820	ㅇ웨딩홀 이용규칙 변허제작	95,700		
	ㅇ월드자판기 사업수입	23,100,000				
	ㅇ더부페 웨딩수입	56,600,000				
	ㅇ일파르코 웨딩수입	51,700,000				
	ㅇ웨딩이벤트 사업수입	1,800,000				
	ㅇ이자수입	294,670				
					②	
	계	448,209,490		95,700	448,113,790	
	조합 기금 현금 잔액(조합 부동산 제외)				1,138,868,923	

주차 사업 수익 1,164,638,868 원
주차장 운영위탁 수수료 278,217,400 원
주차사업 운영경비 6,344,880 원

예를 들어 KBS노동조합이 대의원대회에서 밝힌 2017년 수익사업 중 주차장 사업 내역을 살펴보자.(이 정도의 자료도 장학회에는 제출된 적이 없었다)

총 매출은 11억6천만 원, 비용은 5억1천만 원이다. 비용 내역을 보면 위탁운영 사업자(~2017.5/청우TS, 2017.7~/KBS비즈니스)에 대한 수수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세금과 유지보수비 등이 있다. 위탁 운영기관이 있는데도 별도의 운영경비를 쓴 이유는 무엇인지, 비품구입과 유지보수비의 상세내역은 무엇인지 등 모든 비용은 증빙 가능한 회계서류(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특별한 의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것이 회계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언론노조KBS본부는 장학회 운영위원의 자격을 얻어 참석한 지난 6월8일 첫 회의에서 4년 동안 왜 회계 검증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사측 노측 위원 그 누구도 자료제출이나 결산검사를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장학회운영위원회는 KBS노조 소속 위원 3명과 사측 위원 3명이 맡아왔다.)

언론노조KBS본부는 KBS노동조합의 4년치 수익사업에 대해 회계전문가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적립된 수익금을 투명하고 온전하게 장학회로 이관할 것을 주문했다.

전편에서 공개했듯이 장학회는 파산위기를 맞고 있다. 가장 결정적 원인은 KBS노동조합이 내기로 한 수익금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익사업에 대한 검증은 회계의 투명성이라는 기본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장학회의 재정 위기와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KBS노동조합의 수익사업 중 티타임 커피숍에 대한 임대료는 지난해까지는 KBS노조가 자체 수익으로 가져갔고, 올해부터는 그 수익금이 모두 장학회로 이관됐다.)

다음편에 계속...